

성경연구의 신학적 기초

손봉호
(서울대 교수)

1. 들어가면서
2. 계시의 필요성
 - (1)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 (2) 범죄와 타락 때문이다.
3. 성경연구의 이유

베드로 후서 1장 30~31절, ‘먼저 알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1. 들어가면서

이 글에서는 성경해석 혹은 성경연구에 있어서, 그 이유와 방법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보고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주어진 제목인 ‘성경연구의 신학적 기초’란 말을 우리가 조금

* 제2부는 본 연구소 주최 성경공부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1985. 2. 25~27)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음 테이프를 통해 정리한 것이다.

만 따져 보면 당장 순환논리에 부딪히고 만다. 신학,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학이란것은 성경에 기초해야만 한다. 그런데 성경에 기초한 신학을 할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 성경연구의 신학적 기초를 말하라고 하니 이것은 순환논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당장 성경연구의 신학적 기초가 순환적이란 것은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의 학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논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비논리적으로 논리학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래서 논리학을 가르치면서 논리를 이용해서 논리학을 가르친다. 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그 심리적인 것으로 심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소위, 우리의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인식론이란 것도 사실상 우리가 가진 지식을 통하여 논하는 것인데, 이와같이 이것들도 어느정도 순환적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과 좀 다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이 순환원리라는 것이 아주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계시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순환논리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것을 어떻게 아느냐? 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것을 안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성경의 자증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의 독특한 통일성과 유명한 인물들의 인정 그리고 예언의 성취, 많은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것 등을 내세워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증거 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된 것과 유명한 사람의 인정, 성경의 독특한 통일성 등은 모두 인간의 관찰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과 관찰에 궁극적인 권위를 두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이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받아 들인다. 이런 순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이 맹세할 때, 보다 큰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내세워 맹세를 하게 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지극히란 끝이라는 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외에 권위와 능력을 발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는 수 없이 자기자신으로 맹세하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성경은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는 유일한 근거와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에 대하여 말한 것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어떤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딜레마(dilemma)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딜레마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자기자신에 대하여 증거할 때 자기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려면 성경에 호소하는 도리밖에는 없고, 또 성경연구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논하려 하면 역시 성경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그와 같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성경연구에 대한 모든 논의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수가 없는 것이다.

2. 계시의 필요성

(1)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이다.

성경연구의 문제가 거론되면 그것은 당장에 계시의 문제로 들어가야만 한다. 기독교에서 계시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계시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방 종교에서도 계시란 것을 말하는 종교는 다소 있는데, 불교와 힌두교도 계시를 어느정도 말하고 있고 경전도 가지고 있고 유교에서도 공자의 논어와 사서삼경 등이 경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와 같

은 이방 종교에서 경전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첫째, 기독교에서는 이 계시를 내리신 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이 힌두교나 불교나 유교와 같은 이런 종교에서는 계시를 낸 분을 창조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계시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경전으로서의 계시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힌두교나 유교나 불교에서는 그 경전을 쓴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쓰는 것이다. 즉, 자기가 발견한 것을 쓰는 것이다. 대오각성(大悟覺省) 하여 아주 크게 느껴서 혹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거나 또는 무엇을 해서 자기가 느낀것을 쓰게 된다. 바로 이것과 기독교에서의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인간과 같은 것으로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는 넓은 의미로 범신론(汎神論)이라 한다. 그러나 범신론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범신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범신론이 되는 것이다. 즉, 무(無)로부터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 범신론이라고 볼 수 있다. 범신론이란 것은 구태여 종교 뿐만 아니라 철학의 대부분 사상도 범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전 우주의 삼라만상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둘로 나누었으며, 인간과 정신은 귀하고 물질은 천하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정신적인 것과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들이고, 물질적인 것에 활동하는 사람은 저급한 사람으로 보았다. 그래서 노동자는 형편없고 철학자는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신 뿐이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인간은 물질적인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정도 였다.

그 뒤를 이어서 이것 보다도 심한 부류가 있었다. 그 뒤에 에피큐리(Epicurian)과 스토퍽(Stoic)들은 신이 물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인간과 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헤겔(Hegel)도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이 결국 자기자신을 변화시켜서 우주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정신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신의 생각이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우리가 가진 이성은 결국 신의 이성에의 하나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하였다.

스페노자도 그랬고 심지어 천주교(Roman Catholic Church)의 데아드샤르뎅 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 우주는 원래 원 물질로부터 점차적으로 진화하여 식물이 되고, 동물이 되고 인간이 되고 제일 끝이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였다. 즉, Alpha에서 폭발하고 발전하여 다시 Omega에서 오므라져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Omega의 마지막 point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된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성경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가 예수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예수나 다같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것도 다 범신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계시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단지 깨닫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철학적 단편」이란 책에서 '스승으로서의 그리스도'와 '스승으로서의 소크라테스'란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이 있다. 소크라테스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범신론적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식의 유명한 교육 방법을 사용한다. 즉,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대화만 하는 방법이다. 그는 연쇄적으로 질문만 계속해서 하고 스승은 결코 제자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질문을 계속하면 제자는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이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진리가 자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무식 하지만 잘 유도하여 일깨워 주기만 하면 나중에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방법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승으로서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을 산파술(產波術)이라고 말한다. 산파는 얘기를 낳아주지 않고, 산모의 배 속에 아기를 넣어주지 않으며, 단지 임부(妊娠)가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 줄 뿐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승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으로는 이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다. 즉, 무식할 뿐만 아니라 무식하다는 것도 모르는 무식인 것이다, 진리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스승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진리를 넣어주는 자이다. 이 양자(兩者)의 차이는 참으로 중요한 차이이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이 나타나 있다. 인간은 궁극적 인 진리 (ultimate truth)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과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 또 아무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공통점으로 가진 것이 없다. 가령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참새와 개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 창조 교리의 의미이다. 이것은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유명한 반틸박사는 한학기 강의를 내내 이것만 가지고 한적도 있다. 그 분은 강의 시간에 들어오면 원을 두개 그리는데 한개는 하나님이고 다른 한개는 사람이다. 한개는 하나님의 세계이고, 다른一个是 인간의 세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양자는 서로 떨어져 있었다. '강의의 시작이요 결론이 있고 전부였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有)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 교리는 사람의 생각에서나 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즉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아득한 옛날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주로 자연을 관찰하고 살았다. 원시시대일수록 자연은 많고 인공은 적었을 것이다. 주위에는 모두 자연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하는 것은 모두 자연에 근거했다. 그때 사람들이 가령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했을 때 무엇을 연상하겠는가? 자연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기는 것을 생각하게된다.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 중 가장 서비스럽게 느껴진 것이 바로 짐승이 새끼를 낳고, 사람이 얘기를 낳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하는 이것 이었을 것이다.

옛날의 모든 창조설화에 보면 반드시 예외없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예를들면, 하늘은 남자고 땅은 여자인데 하늘과 땅이 결혼하여 세상을 낳았다는 이야기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그런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며, 인도의 신화에도 그러하고, 희랍의 신화에도 나타난다. 게아는 땅이고 우라노스는 하늘인데 이 둘이 결혼하여 코스모스 (*Kosmos*)인 우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신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성경에는 도무지 그런 것이 없다. 영어로 생산이란 뜻에 Generation 이란 말과 Fabrication이란 말이 있는데, Generation이란 생산한다는 것의 Gen이란 말로 본래 생물학적인 생산을 말한다. 즉, 짐승이 새끼를 낳고 사람이 자식을 낳고 할 때 그것을 Generation이라고 하지만 Fa-

blication란 말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 그런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자는 생물학적인 생산이며 후자는 인공으로, 수공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Generation이란 것은 그 생산된 것이 그 부모의 성격을 닮아야 한다. 강아지는 어미개의 요소를 가지며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요소를 가진다. 그러나 Fabrication은 내가 가령 시계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시계가 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인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는 Generation의 요소가 전혀 없다. 신학적인 설화에는 대부분이 Generation적인 요소로 되어있다. 그래서 인간도 우주의 일부라고 하며 우주가 곧 우리를 낳았다고 한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우리를 낳았다고 본다. 동양의학에도 사상의학이란 것 이 있다. 옛날 의서(医書)에 의하면 사람에게 두 눈이 있다. 그처럼 천지에도 해와 달의 빛이 있고, 하늘에도 별이 여러개가 있듯이 인간 몸에는 구멍이 여러개가 있으며, 천지의 사시처럼 인간에게 사지가 있다고 한다. 또, 사람에게는 음양이 있고 천하에도 음양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을 때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등등하며 모두 이 원리대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것은 인간이 우주와 다른 것이 없는 닮은 것이라는 가정에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있다. 즉, 인간과 우주는 전부 비슷하다고 생각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Generation이 아니라 Fabrication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Fabrication하였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창세기의 창조이다. 그 시대에 어떻게 모세가 이런 것을 쓸 수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아주 신기해 진다. 모세가 만일 계시가 없이 자연인으로서 창세기를 기록하였다면 반드시 고대인의 근성에 따라서 Fabrication이 아니라 Generation으로 쓸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창조 교리의 계시성 (Nature of revelation)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의 계시

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모세가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자연인으로서의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도저히 무(無)로 부터 유(有)를 창조했다고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태초에 원 물질(原物質)이 있었다고 하며, 그 원 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그 폭발한 파편이 점점 멀리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우주에서 오는 전파가 끊임 없이 오고 있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점점 멀리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 놓고 우주 생성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흥미로운 것은 그 사람들도 없는 것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도 원물질이 있었고 그것이 폭발했다고 가르치고 있다. 성경만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왔다고 가르치고 있다.

(2) 범죄 타락으로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어느정도는 알 수 있게 하셨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의 만드신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계신것을 알도록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 인간이 본성으로 신의 성품을 타고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넣어주었기 때문에이라고 볼 수 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말하고 있다. (롬 1:18)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말은 억누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속에 하나님을 알만한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자꾸 억눌러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이라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우리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계시 (General

Revelation)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자연계시로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자연계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비뚤어지고 만 것이다. 인간의 범죄의 결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인식론적으로 따지면 인간의 제일 심각한 죄의 결과는 참진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범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모른다는 가장 심각한 무지를 말한다. 이런 두 가지 이유 즉, 우리가 피조물이고 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도록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셔야만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한 것이다. 계시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후면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를 아주 막연하게 주시거나 아주 유식한 사람만이 알 수 있게 주셨다면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그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주셨다.

실존주의 신학자, 가령 Karl Barth나 Emil Brunner 같은 사람들은 성경 자체는 계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단지 계시에 대한 증거라고 말한다. 바르트가 쓴 유명한 표현 가운데 ‘성경은 세례요한의 손가락이다’고 했다. 이것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했는데서 연유한 말이다. 진짜 계시는 예수님이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요한의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하며, 또 ‘모세의 지팡이’이다’고 한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저게 가나안이

다’라고 가르친 것처럼 성경은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을 가르키는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한다. 계시란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지 성경 그 자체는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 한다.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개혁주의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주어서 분명히 계시한 것이지 막연히 느낌만 주어서 그 내용은 마음대로 기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혹자는 하나님은 큰 것만 말하고 세부한 것은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고 무식하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면 그렇게 생각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방향만 제시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작은 구석까지 다 이끌고 가주셔야만 한다.

성경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없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할 수 있는 기초는 없다. 우리가 만일 자신이 피조물이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면 성경, 즉 계시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은 설교에서도 나타나야만 한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소리높여 성경 중심을 외치고 성경을 사랑하며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덮어 두고 본문에서 떠난 자기 사상과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 경험을 설교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의 기발한 생각들이나 좋은 책의 내용을 전하고 싶은 것은 설교자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강한 유혹이다. 그러나 이것을 억누를 줄 모르면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경험과 철학과 말이 인간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확실하게 경험을 했지만 자기자신의 그 확실한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은 말씀을 설명하는데 도구들로써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설교의 내용을 대신하거나 설교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

3. 성경 연구의 이유

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애를 쓰고, 따지고, 생각하며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단지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도 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이다. 우리 개혁주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독교는 인간 지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코 읽는다는 그 자체가 어떤 공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1장 13절에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지 고막이 울렸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했다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이 또한 누구에게나 다 바르게 이해된 것은 아니다. 이단이 나온 것은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자명하다면 이단이 생길리가 없다. 아프리카의 한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여,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밀을 땀하는데서 그들은 주일에만 추수를 한다. 로키산맥의 한 교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당안의 한 바구니에 뱀을 잡아다가 모아두고 예배후에 그 뱀을 만지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하니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자명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이해되는 그런 책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베드로 후서 3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단순히 자명하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 내용이 다 깨달아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과대 평가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에 비하면 너무나 얕은 것일 수 밖에 없다. 연구하지도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즉시 알아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낫거나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같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또 왜 성경은 즉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성경이 그 시대의 사람에게 알도록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시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때문에 원어를 배우고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다. 그 예로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실 것을 말하자 한글 성경에는 '간하여'라고 짧잖게 표현했지만 원어에는 '꾸짖는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원어를 알아야 찾아낼 수 있다. 칼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말을 더듬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계시를 낫추어서 그 시대의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는 당시 사람에게 주었던 계시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볼 때 성경연구에서 지도자는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지도자 없이 하는 성경연구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개인으로도 성경연구는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원어와 조직신학과 역사와 해석학을 배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신학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좋은 주석이나 인도자의 조언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성경을 올바로 이해 하려면 오늘 우리가 가진 편견을 바로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가치관과 세계관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상대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나름대로의 상식과 지식, 그리고 관점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늘 위협이 될 따르게 된다.

근본적인 성경해석의 목적은 그 기자들이 의도했던 목적을 아는 것이다. 신학교에서 본문비평을 배울 때 가장 말이 안되는 사본이 원본과 가깝다는 이상한 법칙이 있다. 사본을 필사하다 보면 필사자들이 원본을 자기 의도대로, 또는 말이 안되는 부분을 뜯어 맞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논리가 안맞고 말이 안되는 사실이 원저자의 그것과 가깝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의도대로 보려는 시도들을 비추어 볼 수 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가진 의식의 구조와 뼈대를 벗어나서 성경을 읽어야 올바른 뜻을 발견할 수 있다. 땅위에 있는 한 환경과 문화, 편견등을 갖고 나름 대로 성경을 해석할 위험에 늘 대처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나이를 계속 먹어 가는데 아들은 없고, 양자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므로 첨을 취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나느웨를 구원시키는데 있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와 다르리란 보장은 없다.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대로 성경말씀을 끼워 맞추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때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당한 성경구절을 인용한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구절 자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의도와 다른 것을 말하더라도 그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그뜻을 말하게 해야 한다. 성경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안에 있어야 하고 성경 밖으로 너무 멀리가면 위험하다.

이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가능한 한 편견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하지만, 일단 이해를 한 후엔 우리의 전 인격이 그 말

씀과 만나야 한다. 차디 찬 이성으로 이해만 하면 별로 큰 유익이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빌라도가 주님을 내어주니 병사들이 채찍질 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다고 간단히 기록된 본문을 그저 '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전에 채찍질 했구나'라는 식으로 이해만 하면 그 이상의 진전이 없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당시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전 인격적으로 느끼며 주님의 고난에 대해 회개와 감사가 되어야 한다. 즉 성경의 사건과 우리의 인격이 합쳐질 때 성경의 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성경이 객관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의 전 인격이 가미되어 감격하고, 찬양하고, 성장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런 자세로 연구해야 한다.